

도내 새일센터-전북조선업도약센터 '맞손'

조선업 분야 구직 희망자에 일자리 연계·직업 훈련 참여 등... 조선업 구인난 해소·경단녀 일자리 창출 등 기대

전북지역 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전북조선업도약센터가 9일 손을 맞잡았다.

이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업 구인난 해소 및 도내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조선업 분야 우수한 구직자 발굴 및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 △조선업 분야 교육훈련 및 구직자·재직자 역량 강화 지원 △조선업 협력업체와 네트워크 구축 및 인적·물적 자원 교류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산업고도화 및 지역일자리 창출 모색 △상호 기관 및 운영사업에 대한 지역인 홍보 협력 △여성친화적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등이다.

이에 도내 새일센터에서는 조선업



전북지역 9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전북조선업도약센터가 9일 손을 맞잡았다.

분야에 구직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이 외에 전북조선업도약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8월 중 전북지역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대상 조선업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조선업 취업 인식개선 특강과 9월 중 조선업 분야에 관심 있는 구직 여성 대상 지역순회 설명회도 가질 예정이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은 "전북도 조선업의 재가동이 전북지역

경제 발전에 또 하나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맞춤형 교육훈련 시스템을 발굴하고 취업 연계까지 논스톱 지원으로 지역의 고용시장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조선업도약센터 이정화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전라북도 조선업 분야와 도내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또한 전북도 여성가족과 김경 과장은 "도내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조선업 구인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지원팀(063-254-36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여름방학을 맞아 9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 청소년 금융교육센터에서 '화폐와 떠나는 세계여행' 여름방학 특강 금융교육체험을 실시했다.

청소년금융교육센터 '여름방학 특강'

NH농협은행 전북본부, 화폐와 떠나는 세계여행 금융교육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경민)는 여름방학을 맞아 9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청소년 금융교육센터에서 '화폐와 떠나는 세계여행' 여름방학 특강 금융교육체험을 실시했다.

NH농협은행 대학생 봉사단 엔돌핀과 함께한 이번 금융교육체험에는 세계의 화폐에 대해 알아보고 환전 방법, 미디어월을 활용한 금융교육과 금융사기 예방교육, 통장 만들기 등 일일 은행원 직업 체험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어린이들이 운동권과 신용권과 합리적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장경민 본부장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금융의식에 대한 기초를 튼튼

히 다지길 바라며 여름방학 특강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금융교육과 은행직업체험 등 즐거운 금융교육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청소년금융교육센터는 매월 주제를 선정해 진행된다. 8월 '화폐와 떠나는 세계여행'을 시작으로, 9월 '돈이 움직인다'(금융의 의미와 일상 속 금융회사들의 역할), 10월 '신용이 뭐야?' 11월 변화하는 돈의 가치', 12월 '세계 부자의 기부'가 주제로 구성하여 운영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협은행 청소년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http://youthedu.nonghyup.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선착순 접수로 이루어진다.

김옥기 기자

전북농협, 재해대책상황실 24시간 긴급 가동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이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재해대책상황실을 긴급 가동한다.

전북농협은 9일 전북농협 전 법인이 참여하는 재해대책위원회를 소집, 태풍 관련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전북농협은 태풍이 전북지역에 최근접하는 10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가 최대 고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농협은 농업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상황을 집계하고,



전북농협은 9일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전북농협 전 법인이 참여하는 재해대책위원회를 소집, 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재해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계통보고 역할을 수행하는 재해대책상황실을 특보 해제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일 본부장은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취약지구 현장점검 및 농업인 행동요령 전파 등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농어촌공, 잼버리 대원들에 숙소 등 제공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학생들을 위해 잼버리 대회 폐막일 까지 숙소와 문화·견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에 도착했다.

공사는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공사 부설 인재개발원을 활용하여 100여 실을 파나카 등에서 온 학생에게 제공하고, 지자체 및 지역 소방서, 보건소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대원들의 안전도 책임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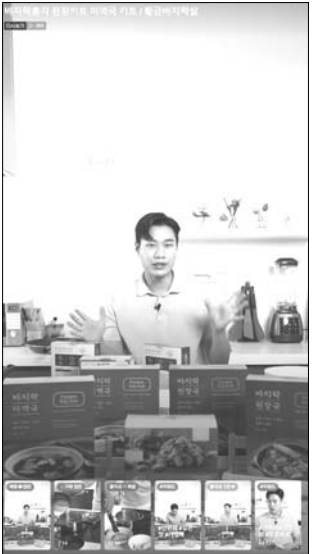
아울러, 남은 행사 기간 동안 안산시에 머무르는 잼버리 대원 400여 명을 대상으로 대표 관광자원인 수목원, 조력발전소, 미술관 등을 활용한 문화체

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최병윤 인재개발원장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잼버리 대회가 원활히 마무리되기를 기원하며, 스카우트 대원들이 퇴소하는 날까지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지역 농·식품 창업기업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전북대 창업보육센터, 내달까지 '생생 라이브 마켓' 진행 우수 5개 기업 선정... 네이버 쇼핑라이브와 제휴 2회씩 송출



전북대 '생생 라이브 마켓'

전북대학교 창업보육센터(센터장 권대규)는 도내 농·생명 창업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지난 8일 시작해 9월까지 두 달 간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사업인 '생생 라이브 마켓'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생 라이브 마켓'은 전북대 창업보육센터가 전북바이오헬스산업진흥원, 한국농수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와 함께 2023년 지역기술 창업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지역의 우수한 농·식품 기업 5개사를 발굴해 보유제품을 기업 당 2회씩 네이버 쇼핑라이브와 제휴 채널을 통해

동시 송출된다. 참여 기업은 고창산 손질 바지락살과 미역국 밀키트를 판매하는 (주)글로벌클램을 비롯해 듀얼 유산균제와 소금치약을 판매하는 엘에이치, 레모나 선스틱과 토너를 판매하는 (주)메디엔리서치, 전주 물갈비 밀키트를 판매하는 (주)유스프림, 닭갈비와 주꾸미 밀키트를 판매하는 전주김초푸드 등 다섯 곳이다.

이에 따르면 라이브커머스 특성에 맞게 전북지역의 특산물과 천연 재료를 이용한 제품 등 소비자의 생활과 밀접한 품목으로 구성됐다. 특히 품질

은 인종됐지만 마케팅 기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 농식품 초기 기업의 제품들을 전문 라이브커머스 제작사와 협업해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알릴 수 있어 지역 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과 매출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권대규 센터장은 "초기 기업의 제품은 품질이 우수해도 판로 확보가 다양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 자체가 전달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전라북도 창업 기업의 매출성장을 위해 초기 기업에 적합한 판로를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